

發 刊 辭

이번 법학 제46권 2호는 2005년 2월 말로 정년을 맞이하신 김동희 교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中凡 金東熙 教授께서는 35년간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봉직하시면서 행정법의 교육과 저술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서울대학교 내는 물론 수많은 법학도들에게 학자의 진면목을 보여 주시며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특히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교재를 통해 學恩을 입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선생께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법학이 아직 일천한 시기에 일찍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셔서 국제법과 행정법에 대한 연구를 하신 후, 어려운 국가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고, 귀국하신 후에는 일본과 독일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크던 우리 학계에 프랑스의 법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시키시면서 우리의 비교법적 시야를 크게 넓히셨고,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의 행정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법에 있어 ‘재량행위’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는 한국 행정법 역사에서 일대 획을 그은 중요한 업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中凡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예컨대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을 오히려 걱정해주는 자상한 스승이셨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를 말하자면, 전공이 달라서 직접 내용적인 學恩을 입은 바는 적지만,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강단에 서서 가르치신 첫 제자세대로서, 지금도 Conseil d'État의 판례를 열심히 설명하시던 그 때의 선생님 모습이 기억에 또렷하며, 그 모습에서 더 넓은 시야에서 법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던 감회가 지금도 새롭고, 무엇보다도 유학을 마친 후 후배교수로서 모교에 부임하였을 때 부단히 연구해서 법학지의 매호에 글을 신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늘 자극이 되어 나름으로 애쓰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으니 그 자상하신 가르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의 연구 활동에만 주력하신 것이 아니라 이의 적용과 실천을 강조하시어 많은 후학들에게 “학문을 위한 학문”을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셔서 본을 보이셨음은 물론입니다. 일찍이 무白하신 용모와 달리 현금에 이르기까지 年富力強하게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바, 두루 역임하신 많은 직책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장직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평의회 의장직을 역임하셨고, 교외에서는 한국공법학회 회원·연구이사·섭외이사·명예상임이사, 한국행정관례연구회 회원·총무이사·연구이사·감사,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고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의 제반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늘 분주하셨으나 항시 우리 곁에서 조용한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이번 호 『법학』지를 발간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同學 諸賢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의 學德의 깊이와 무게를 새삼 느끼게 하는 알찬 기념호가 된 것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간접으로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모든 이와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께서는 정년을 맞아 학문과 교육의 역정에 한 획을 긋고 학교를 떠나시지만 더욱 왕성한 활동과 지도로 후학들에게 더 큰 본으로 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과 닮은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5년 3월 31일

法學研究所長 崔秉祚 謹書